

# 오염된 호수

소영이와 승환이는 오랫동안 낚싯대를 들고 호수로 고기잡이를 나섰다.

지금 간 곳은 환경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호수였다.

지금 그 곳은 물이 매우 맑고 깨끗하여 이 동네의 자랑이다.

옛날 한 때 이곳이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곳은 오염될대로 다되어 아주 버려지고 못쓰게 된 폐수 쓰레기 하치장이었다. 몇 달 전에 소영이와 승환이가 이곳을 찾아 왔을 때 이곳 주위에는 온갖 쓰레기가 뒹굴고 저수지 밑에는 시커멓고 더러운 온갖 것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물위에 떠있는 물고기들에게는 심한 악취가 풍겼고, 주위에 있는 공장들은 이젠 단속반이 뛰냐는 듯이 마구 폐수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 물 참 더럽지? 누나.”

“그래, 이 큰고기 좀 봐 죽었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고기를 건져 보며 중얼거렸다.

소영이는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손수건에 고기를 싸서 산에 묻어주고 돌아오니 어른들이 미워졌다.

많은 고기들이 떠내려 오고 있었다.

“이 고기들이 죽은건 다 저 공장에 있는 아저씨들 때문이야.”

소영이는 건너편쪽의 한 공장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래, 누나, 저 아저씨들 참 나빠. 죽어가는 이 호수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

“그래, 승환아, 우리 마을 사람들이라도 힘을 모아 이곳을 다시 되살려야돼.”

둘은 이 곳을 되살리자는데 생각을 모아 내일 학급회의 시간에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날, 소영이는 학교 회의시에 이것을 협의 의제로 발표하였다.

“여러분, 저는 협의 의제로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영 회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습니까?”

아무도 반대하는 회원이 없었다.

김소영/ 광주남국민학교 6학년

“자 그럼, 김소영 회원은 노력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건너편에 있는 호수를 깨끗이 치우는 일입니다.”

소영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아이들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발언권을 신청하였다. 회장인 형민이가

“박진규 회원 말씀하십시오.”

“예, 그럼, 전 김소영 회원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수의 폐수는 그 공장 종업원들이 버림시롱 그것을 왜 우리가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장측에서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가 발표를 마치자 교실은 웅성웅성 대는 소리로 매우 시끄러웠다.

그러자, 회장이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소영 회원의 답변 바랍니다.”

교실은 소영이의 말을 듣기 위하여 다시 조용해졌다.

“예, 물론 박진규 회원의 생각도 보통 생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은 뭐가 하지만이나. 그럼 맞는 거지. 워매 저 바보 무식한놈”

소영이의 말을 하고 있는 도중 뒤에 앉은 정준이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소리쳤다.

“오정준 회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하지만 우리 마을을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가꾸겠습니까? 저 호수가 저렇게까지 더러워진 것도 우리 마을 사람들의 그 케케묵은 생각 때문입니다. 마을 어른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공장에 찾아가 폐수를 버리지 말아달란 말 한 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만 주우면 된다는 그 생각이 저 호수를 저렇게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저 호수는 옛날에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우 파리나 모기의 대형 목욕탕 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꼭 저래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협동하여 쓰레기나 폐수 등을 치우면 반드시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다만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하자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자, 저는 이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을 것으로 믿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반대 의견은 없었다.

“자, 그다음 선생님 말씀.”

“오늘 소영이가 참 좋은 의견을 냈는데 선생님도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설명 안해도 알겠지요?”



“예.”

즐거운 청소 시간이 되었다.

소영이는, 경희와, 정국이는 현진이와, 효현이는 동환이와, 동영이는 정준이와 이렇게 서로서로 짝을 지어 나무 막대기와 빗자루 비닐봉지를 들고 호수로 갔다.

“자 그럼, 먼저 내가 소영이와 함께 공장에 가서 폐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오겠으니 그동안 주위를 청소 잘 해라. 알겠지?”

“예.”

6학년 2반 아이들은 서로 힘을 모아 풀도 뽑고 휴지도 주워 비닐봉지에 담고, 남자 아이들은 큰 돌을 모아 휴지통을 고치고 작은 쓰레기는 빗자루로 쓸어 담아 휴지통에 버리고 모두들 열심히 일하였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 내렸다.

“앗! 폐수의 물줄기가 멈췄다.”

호수쪽을 청소하던 효현이가 소리쳤다.

“뭐? 야! 신난다.”

“야 선생님과 소영이가 나온다.”

“와!…….”

“자! 여러분 빨리 청소 합시다.”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였다.

쓰레기를 막대기와 집게로 건져내고 만수는 잠자리채를 이용하여 모두들 웃기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호수인 물을, 땅을 파서 폐수처리장으로 흘러 보내니 호수안에는 맑은 물이 고이고, 전처럼 고기들이 놀고주위에는 푸른 잔디가 심어지고, 버드나무가 자라며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휴식처가 된 것은 일을 시작한지 넉달이 지난 뒤였다.

모두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 곳을 환경보호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목이 매어 더이상 말씀을 하실 수 없었다.

그 달 신문에 이 고장 소식이 신문에 났다. 소영이와 승환이가 신문을 보고 있을 때 파사로운 햇볕이 내리쬐고 낚시 찌가 움직이고 있었다. \*



UNEP '89年 제17회 世界環境의 날 주제

전 인류에 대한 경고 : 더워지는 지구

Global Warming